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The Housework Sharing between Husbands and Wives with Special Reference to Wives' Job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학부

부교수 이 미 숙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동학과

교 수 유 안 진

Faculty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Sook Lee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Anjin Yoo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변수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ousework sharing between husbands and wives with special reference to wives' jobs. Using couple data from a sample of 370 dual-earner couples and 250 husband-only employed coup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Husbands of the dual-earner couples participated in housework a little more than husbands of the husband-only employed couples did. 2) The husbands whose wives' jobs are office workers tended to share housework more than the husbands whose wives' jobs are professionals or blue collars did. 3) Among the variables which significantly affect housework sharing, husbands' sex role attitud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nd each partner's working hours a week has also significant effect. I suggested that more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work sharing

* 본 논문은 첫번째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함.

and marital quality in order to identify and to lessen the stresses between husband and wife.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들 부부의 가사수행은 어떠한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선진사회를 비롯하여(Hayghe, 1990; 일본 労働省編, 1991: 106-110), 한국사회 역시 자녀양육기에도 취업하고 있는 도시 기혼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통계청, 1993: 90-95), 부부간의 역할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직업과 가사수행간의 긴장 및 역할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들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부의 대처가 주시된다(Cooper et al., 1985; Moen, 1982). 그리하여 맞벌이 부부에 있어 가사의 공평한 분담은 여성지위 향상의 주요 척도(Kamo, 1994) 내지는 결혼 안정성의 주 영향요인(Katzev et al., 1994)으로 지적된다. 즉, 많은 연구들이 부인의 취업과 관련한 부부의 가사수행에 초점을 두어온 것은, 맞벌이 부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가사수행이고, 이에 대해 불공평을 지각하고 불만족이 증가할 경우 가족의 정서적 복지와 결혼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Antill & Cotton, 1988; Blair & Johnson, 1992; Katzev et al., 1994).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정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부부의 가사수행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인접학문에 걸쳐 맞벌이 부부의 가사수행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 歐美의 연구성과(Blair & Lichter, 1991; Coltrane & Ishii-Kuntz, 1992; Deutsch et al., 1993; Ferree, 1990)와 비교할 때, 국내 연구들의 성과는 가정학(대한가정학회 편, 1990a; 1990b)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회학과 여성학 분야에서의 약간의 관련 연구들 외에는, 대체로 양적 및 질

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부인의 취업유무를 통제한 비교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은 전문직 부인에 편중하여 비취업 부인과 비교하여 왔는데, 전문직 이외의 다른 직종들을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부인의 취업유무별 차이를 보다 잘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취업부인의 직종별 차이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래 연구들은 주 연구대상을 중산층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편이상 주로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도시 유배우 취업여성들의 직종별 구성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경제기획원, 1973, 1982; 통계청, 1992), 다른 직종에 비하여 전문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은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들 직종은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면에서 직종간의 계층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노동부, 1994: 11-12), 직종별 비교가 요구된다. 즉, 취업부인의 이중역할 부담이 취업부인의 모든 직종에 있어 보편적 현상인지, 아니면 계층별 직종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선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직종을 구분하여 그 하위 집단들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가사수행 차이를 설명해 줄 관련 변수들의 규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연구들은 관련 변수들로서 성역할태도 외에 주로 인구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직업관련 변수들로서 부부의 소득 차이, 근무시간 차이, 혹은 출퇴근시간 차이 등이 일부 계층연구(김미하, 1990)에서 언급되었을 뿐, 이들 관련 변수를 함께 통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정교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대한가정학회 편, 1990b: 31)라는 지적과 같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별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를 규명할 것이 더 요구된다. 즉, 앞으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리고 취업부인과 그 남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대한가정학회 편, 1990a: 199)는 지적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협동적 가사수행은 만족스러운 결혼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녀에게도 보다 가치있는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족한 결혼생활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복지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족문제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보다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가사수행 현황과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Nickols & Metzen, 1982), 혹은 맞벌이 가족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임상적 목적(Rachlin, 1987)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맞벌이 부부의 시간과 에너지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 변수의 고찰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부부의 가사수행에 관한 관련 변수들로서 태도변수,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환경 변수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태도 변수

먼저 부부의 역할규정에 대한 가부장적 규범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부장적 규범과 관련된 성역할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특히 현대 가정에서의 주부역할이 여성 자신의 행복감의 근원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남편과의 가사분담을 스스로 제한한다고 하는 부인의 가정성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①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란,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다르다고 하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리 및 남자의 가사참여를 체면손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느정도 지지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남녀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자의 가사참여를 체면손상으로 생각할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성별역할 이념론에 따르면, 성역할태도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수행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제한하므로, 부인의 이중역할로 인한 불만족이 초래될 수 있음(Blair & Lichter, 1991; Coltrane & Ishii-Kuntz, 1992; Cooper et al., 1985; Katzev et al., 1994)을 지적한다. 대체로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낮은 가사참여와 관련되며(김양희 외 5인, 1992; Antill & Cotton, 1988; Bird et al., 1984; Blair & Lichter, 1991; Kamo, 1988; Katzev et al., 1994; Kim & Lee, 1989; Model, 1981; Ross, 1987), 부인보다는 남편의 태도(Ross, 1987)가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부 연구(Kim & Lee, 1989)에서는 남편보다 부인의 태도가 더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아동양육을 포함한 가사참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김미하, 1990; Atkinson,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수행과의 관계는 좀더 구체적인 경험적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종래의 연구들은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배우자가 대신 지각한 것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Ross(1987)의 지적대로,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부부의 가사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② 가정성(家庭性)

가정성 이념론에 따르면, 산업화로 인한 직업과 가족세계의 분리는 부인의 가정성 이념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부인의 가사수행을 보다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Stockard와 Johnson(1980: 47-50)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직업세계에 대비되는 私的인 가족세계는 개인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직업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활의 의미와 만족감을 찾는 곳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가정은 거칠고 험악한 세계로부터의 은신처로 理想化됨으로써 여성의 모성역할이 강조되고 여성역할의 理想化로 발전하였다(조옥라 외 4인, 1986: 1-23; Smith & Reid, 1986: 20-23)는 것이다.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理想的인 전업주부像은 부부간의 역할분리가 理想的이라는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고, 가사수행을 전담한 여성에게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가사영역은 여성 나름대로의 권력과 행복감의 근원이 된다(조형, 1991; Smith & Reid, 1986: 24-25). 한국사회의 경우, 특히 일제시대에 유입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조혜정, 1986a)는 여성의 가정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의 가정성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며(Ericksen et al., 1979), Katzev와 그의 동료들(1994)도, 남편의 가사 참여가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능력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부인일수록 남편의 참여를 꺼린다고 하였다. 즉, 이중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가사분담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Berk, 1985, 204-208; Cooper et al., 1985; Ferree, 1990; Rachlin, 1987; Smith & Reid, 1986: 28-30).

요약하면 가정성이란, 여성이 가사역할을 스스로 자발적인 수행 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가사수행을 우선순위로 중시하여 이를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성은 부인을 대상으로 측정된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응답을 통해 산출한 심리적 성향 점수에 기초하여 가정성의 높고 낮은 정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부부의 가사수행과 관련한 직업 변수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소득과 시간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

때 소득요인으로는 부부의 월소득차이를, 시간요인으로는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 출퇴근시간 차이, 그리고 교대근무를 선정하였다.

① 부부의 월소득 차이

소득은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자원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효용극대화론에 따르면,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하여 부부는 외적 경제체제인 노동시장과 내적 가족체제인 가정생산에서의 생산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각자의 생산성이 더 높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효용을 극대화시키게 된다(Geerken & Gove, 1983: 16-17; Berk, 1985: 23-24; McConnell & Brue, 1992: 52-56)고 한다. 이때, 가족이 추구하는 효용은 가족의 복지, 만족, 생활의 質(Berk, 1985: 23-24)이며, 이 이론의 기본 假定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은 가능한 한 최대로 효용 내지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맛벌이 부부의 경우, 대개 취업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을 능가하기는 어려우므로(Ferree, 1990, 1991),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의 최대 복지를 위해 부인이 가사몹을 더 담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인은 가정생산에 더 전념하고 남편은 시장생산에 더 전념하게 된다고 하겠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7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의 가사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1988; Deutsch et al., 1993; Ericksen et al., 1979; Kamo, 1988; Model, 1981; Ross, 1987). 특히, 불안정 취업으로 인해 부인의 월소득이 지극히 낮은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는 매우 낮다(현정혜·박혜인, 1992). 그러나 반대로 부인의 소득이 증가해도 남편의 가사참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Antill & Cotton, 1988; Blair & Lichter, 1991; Ferree, 1991)거나, 혹은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한다(Bird et al., 1984) 등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차이인 부부의 월소득 차이가 가정생산에서의 부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좀더 많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각각의 소득으로 분석한 것(Kamo, 1994)보다는, 부부간의 소득차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Model, 1981; Ross, 1987)

는 지적에 따라, 부부간의 월소득 차이를 관련변수로 선정하였다.

②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 출퇴근시간 차이, 및 교대근무

시간은 취업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상대적 시간유용성론은 부부 중 가사가 수행되어야 할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다(Kamo, 1994)는 것으로, 이 이론은 각자의 취업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비례해서 가사를 수행하는 것을 합리적 결정규칙(Ross, 1987)으로 본다.

먼저 근무시간을 살펴 보면, 남편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는 감소하고(이정수, 1984; Abdel-Ghany & Nickols, 1983; Antill & Cotton, 1988; Blair & Lichter, 1991; Ferree, 1991), 부인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하며(Blair & Lichter, 1991; Coltrane & Ishii-Kuntz, 1992; Deutsch et al., 1993), 부부의 근무시간 차이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는 증가한다(Atkinson, 1984). 그러나 반대로 취업부인의 여가시간 증가는 가사참여 증가로 연결되나, 남편의 여가시간 증가는 가사참여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실직하거나 은퇴한 남편이 집안일을 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같이, 일부 연구(김양희 외 5인, 1992)에서는 근무시간과 남편의 가사참여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시간유용성론의 한계가 크다(Blair & Lichter, 1991)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교대근무는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출퇴근시간이 다르므로 일상근무와 비교해서 식사준비의 총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할 수도 있다(Blair & Lichter, 1991; Coleman, 1988; Moen, 1982). 따라서 교대근무 및 출퇴근시간의 차이가 부부의 가사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가족환경 변수

부부의 가사수행과 관련한 가족환경 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족유형과 가사노동환경의 편리

성을 선정하였다.

① 가족유형

취업부인의 경우, 대체로 확대가족을 통한 媵母 내지 親庭母의 도움이 크고, 이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는 낮아진다(이연숙 외 3인, 1991)고 하여, 확대가족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 변수로서, 媵母 내지 親庭母와 동거하는 가족유형을 선정하였다.

②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

산업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정의 가사환경을 편리하게 개선시킴으로써 장차 가정에서의 공동활동을 증가시키고 부부간의 역할공유를 더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화에 의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가정생활을 모두 자동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즉, 일부 가정기기들의 사용은 가사시간을 감소시키지만, 그 밖의 편의식품 이용 내지 의생활 및 주생활 관련 기기의 사용은 가사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탁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artmann, 1981). 일부 가정기기들의 사용은 여성의 가사시간을 절감시켜주지 못하고(이정수, 1984), 오히려 청결 내지 가사표준을 높임으로써 가사량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가정성과 결부되어 남성의 가사참여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이 부부의 가사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경험적 규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가사수행은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부의 가사수행은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태도변수,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환경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인용과 남편용으로 각각 작성된 자기기록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 실행시 논문지도위원회 4인의 교수 및 관련 전공교수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으로 검토하였다.

① 가사수행

가사수행이란, 개별 가족체계의 유지를 위해 각 가족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으로서의 여러 과업들 가운데서 특히 식·의·주생활과 관련한 가사를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의·주생활의 영역별 문항수는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들(이기영 외 3인, 1994; 한국방송공사, 1991)에 기초하여 할당하였는데, 식생활 7개 문항, 의생활 4개 문항, 주생활 5개 문항이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인이 하고 남편은 전혀 안한다”(1점)로부터 “언제나 남편이 하고 부인은 전혀 안한다”(7점)에 이르는 7단계의 응답 범주를 제시하였다. 응답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부인의 수행이 많음을 뜻하며, 반대로 7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남편의 수행이 많음을 뜻한다.

② 성역할태도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1점)으로부터 “매우 반대”(5점)에 이르는 5단계의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10개 문항을 동질적 문항들끼리 묶어주기 위하여

Varimax 방식의 주 요인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역할 분리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편의 체면손상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1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의미하며, 5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의미한다.

③ 가정성

Andre(한국여성개발원 역, 1981), 이기영(1987), 조혜정(1986b)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사역할에 대한 자발적 수행의식, 그리고 가사수행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를 통한 행복의 추구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단계의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8개 문항을 동질적 문항들끼리 묶어주기 위하여 Varimax 방식의 주 요인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사역할의 자발적 수행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사역할의 우선순위와 행복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는데, 1점에 가까울수록 가정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5점에 가까울수록 가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④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로서, 주택 및 부엌유형, 취사용 연료, 수퍼마켓 이용, 가족 외식빈도, 편의식품으로서의 라면 섭취, 가전기기(세탁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사용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10개 항목의 설비정도 및 이용에 대해 각각 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수로 사용하였다.

가능한 총점수 범위는 10점부터 37점 사이이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가사환경 편리성의 정도가 높으며,

1) 자녀양육과 가사는 質적으로 다른 가사노동(Abdel-Ghany & Nickols, 1983; Blair & Lichter, 1991; Deutsch et al., 1993; Nickols & Metzen, 1982)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을 제외한 가사영역만 다루기로 한다.

총점수가 낮을수록 편리성의 정도가 낮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부부가 모두 취업하여 독자적 소득이 있는 도시거주 부부들로서,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도시 유배우 취업부인들 중 적어도 10% 이상이 종사하는 직종(통계청, 1992)이되, 부부 각각의 독자적 소득 및 근무시간의 환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종으로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 등 3개 직종의 정규 취업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의 비교집단으로서 비취업부인의 부부를 함께 표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 문항작성 및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조사와 예비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표집설계에 따라 1994년 5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맞벌이 부부 970쌍(전문직 300쌍, 사무직 320쌍, 생산직 350쌍)과 비취업부인의 부부 550쌍을 대상으로 총 1,520쌍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때, 전문직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중·고교 교사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무직은 일부 대기업 및 금융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각각 표집하였다. 생산직은 서울시와 수도권의 공단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표집하였다. 한편, 입주 가정부는 남편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명백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유형인 주말부부 가족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은 표집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상의 표집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총화표집): 취업부인의 경우,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의 3개 직종으로 총화.

(비취업부인의 경우, 서울시를 전체 22개 區로 총화)

2단계(유의표집): 3개 직종을 대표할만한 사업장을 서울시에서 선정.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공단지역에서 선정.

(비취업부인의 경우, 22개 區에서 1개 국민학교씩 선정)

3단계(할당표집): 본 연구자와 설문지 배포요원들

을 통하여 각 사업장의 조사대상을 할당하고, 해당 취업부인들에게 설문지(납편용 포함)를 배포한 후 회수함.

(비취업부인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함)

표집 결과, 총 1,077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남편이 무직이거나 학생인 경우, 무응답이 많은 경우, 부부가 동일한 판매·서비스직에 함께 종사하여 부인의 독자적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각각 응답했다고는 확실하기 어려운 불성실 응답자들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은 620쌍이 되었다.

이 가운데서 맞벌이 부부는 370쌍이고, 비취업부인의 부부는 250쌍이다. 취업부인의 직종별로는, 전문직 154명(42%), 사무직 118명(32%), 생산직 98명(26%)으로,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집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을 검토하기 위하여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하위집단간 차이는 Scheffé 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3〉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변수들간의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부부간 응답의 차이는 쌍체 t-검증으로 비교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를 동질적 문항들로 묶어주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내적일치도에 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PC+ 4.0을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620쌍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인의 연령은 80% 이상이 30대 이하이고, 남편의 연령은 과반수 이상이 30대 이하로, 젊은 연령층이 다수이며, 맞벌이 부부들이 더 젊다. 부인의 학력은 과반수 정도

가 고졸이고, 남편의 학력은 60% 정도가 대졸 이상으로, 학력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직종은, 비취업부인의 남편에 비해, 사무직과 생산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월평균 소득은 비취업부인의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다. 가족유형으로는, 媿母 내지 친정모와 동거하는 가족은 20% 미만이고, 대부분은 핵가족이다. 그밖에 10% 정도의 가족만 시간제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용하지 않고 있다.²⁾

IV. 분석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부부간 응답의 차이를 쌍체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대체로 절반정도의 문항들에서 부부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부부의 응답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즉, 선행연구들(Atkinson, 1984; Ferree, 1991; Kamo, 1988, 1994; Kim & Lee, 1989; Ross, 1987)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그 평균점수에 기초하여 부부의 가사수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차이 (연구문제 1)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가사의 평균 수행점수를 보면 취업부인 가족은 2.56이고, 비취업부인 가족은 1.94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의 가사참여는 저조한 수준이다.

부인의 취업유무별로 비교해보면, 식·의·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비취업부인의 남편에 비해 부인이 취업한 남편의 가사참여는 상대적으로 의미있게 약간 더 높아서,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적게나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겠다. 이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시간압박이 남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사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이거나, 혹은 취업으로 인한 부인의 자원이 남편과의 협상능력 차

<표 1>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차이 (N=취업부인가족 359-370쌍, 비취업부인가족 247-250쌍)

| 변 수 | 취업부인 가족 | 비취업부인 가족 | 차이 검증 |
|-------------|------------|-------------|----------|
| | 평균 (SD) | 평균 (SD) | t값 유의도 |
| 전체 가사 | 2.56(.65) | 1.94(.45) | 14.04*** |
| 식생활 영역 | | | |
| 1.밥하기 | 1.65(.71) | 1.33(.48) | 6.83*** |
| 2.반찬만들기 | 1.43(.61) | 1.25(.43) | 4.32*** |
| 3.기타음식준비 | 1.70(.71) | 1.43(.57) | 5.18*** |
| 4.상차리기 | 1.92(.80) | 1.46(.58) | 8.29*** |
| 5.설거지 | 2.14(1.01) | 1.49(.60) | 10.03*** |
| 6.식후넋정리 | 1.90(.83) | 1.37(.59) | 9.21*** |
| 7.식품시장보기 | 2.06(.88) | 1.69(.76) | 5.56*** |
| (식생활 평균) | 1.83(.60) | 1.43(.42) | 9.67*** |
| 의생활 영역 | | | |
| 1.빨래 | 2.05(1.14) | 1.30(.52) | 11.09*** |
| 2.다림질 | 2.38(1.64) | 1.45(.90) | 9.02*** |
| 3.이부자리정돈 | 3.74(1.50) | 2.67(1.26) | 9.56*** |
| 4.의류구매 | 2.35(1.02) | 2.06(.85) | 3.73*** |
| (의생활 평균) | 2.63(.85) | 1.87(.57) | 13.25*** |
| 주생활 영역 | | | |
| 1.방, 마루청소 | 3.06(1.25) | 2.03(.76) | 12.67*** |
| 2.화장실,베란다청소 | 2.71(1.32) | 1.92(.84) | 8.97*** |
| 3.집안정리정돈 | 2.60(1.03) | 1.90(.76) | 9.61*** |
| 4.쓰레기버리기 | 3.35(1.47) | 2.18(1.04) | 11.51*** |
| 5.간단한 집안수리 | 5.97(1.16) | 5.50(1.50) | 4.18*** |
| (주생활 평균) | 3.53(.93) | 2.71(.70) | 12.60*** |

주) *** P < .001

원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혹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부인의 가사시간이 감소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사수행 정도가 더 높게 인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식·의·주생활의 각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식생활 영역에서 남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시간요구량이 가장 많은 식생활 영역에서 특히 취업부인의 부담이 크다고 보겠다. 특히 반찬만들기와 밥하기에 남편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데, 이는 한국음

2) 조사대상자의 기타 일반적 특성은 이미숙(1995)의 부록 참조.

식의 조리방법이 복잡하여 참여를 꺼린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간편한 조리방법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밖에, 취업부인의 남편은 비취업부인의 남편에 비해, 특히 설거지와 식후 뒷정리, 다림질과 이부자리 정돈하는 일, 그리고 방·마루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에 상대적으로 약간 더 참여하고 있다.

한편, 주생활 영역의 평균점수를 보면, 식·의생활 영역에 비해 남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단한 집안수리 항목에서 남편의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Katzev와 그의 동료들(1994)은, 주로 여자가 수행하는 가사항목에 남편이 참여할 때, 부인은 유익한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집안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남편의 참여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인의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차이 (연구문제 2)

〈표 2〉에서와 같이, 전체 가사의 평균점수를 보면, 사무직 부인을 둔 남편의 가사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전문직 내지 생산직 부인을 둔 남편의 가사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 보면, 식생활과 주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먼저 3개 직종간 연령 차이로서, 사무직의 경우 부부 모두 20대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20대 연령층에서 부부 공동형의 역할수행이 많다(옥선화, 1984)는 지적과 같다.

그밖에, 부인이 전문직이나 생산적인 경우보다 사무적인 경우, 이들 집단의 자녀의 평균 연령이 낮아서 부모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 요구가 크고, 이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전문직

〈표 2〉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차이 (N= 전문직부인 150-154쌍, 사무직부인 115-118쌍, 생산직부인 90-98쌍)

| 변 수 | 전문직 | 사무직 | 생산직 | 차이검증 F 값 |
|-------------|-------------|-------------|-------------|-------------|
| | 평균 (SD) | 평균 (SD) | 평균 (SD) | |
| 전체 가사 | 2.49(.63)b | 2.79(.69)a | 2.41(.56)b | 11.47*** |
| 식생활 영역 | | | | |
| 1.밥하기 | 1.47(.58)b | 1.84(.85)a | 1.71(.63)a | 10.00*** |
| 2.반찬만들기 | 1.36(.51)b | 1.60(.77)a | 1.34(.50)b | 6.86** |
| 3.기타음식준비 | 1.64(.65)b | 1.91(.83)a | 1.55(.60)b | 8.13*** |
| 4.상차리기 | 1.83(.76)b | 2.09(.82)a | 1.85(.79) | 3.98* |
| 5.설거지 | 2.15(.98)a | 2.40(1.16)a | 1.80(.72)b | 9.99*** |
| 6.식후뒷정리 | 1.88(.76)b | 2.15(.95)a | 1.63(.69)b | 10.83*** |
| 7.식품시장보기 | 2.06(.86) | 2.28(.95)a | 1.79(.76)b | 8.57*** |
| (식생활 평균) | 1.77(.55)b | 2.04(.69)a | 1.67(.48)b | 11.86*** |
| 의생활 영역 | | | | |
| 1.빨래 | 1.90(.93)b | 2.33(1.35)a | 1.96(1.09) | 5.23** |
| 2.다림질 | 2.15(1.53)b | 2.66(1.68)a | 2.42(1.72) | 3.26* |
| 3.이부자리정돈 | 3.80(1.52) | 3.67(1.43) | 3.71(1.56) | .26 |
| 4.의류구매 | 2.30(1.01) | 2.40(1.03) | 2.37(1.05) | .37 |
| (의생활 평균) | 2.53(.81) | 2.77(.92) | 2.62(.81) | 2.60 |
| 주생활 영역 | | | | |
| 1.방, 마루청소 | 3.05(1.34) | 3.39(1.28)a | 2.68(.94)b | 8.79*** |
| 2.화장실,베란다청소 | 2.66(1.27) | 2.97(1.38)a | 2.44(1.29)b | 4.30* |
| 3.집안정리정돈 | 2.59(1.05)b | 2.89(1.01)a | 2.26(.90)c | 10.61*** |
| 4.쓰레기버리기 | 3.26(1.33)b | 3.88(1.52)a | 2.84(1.42)b | 14.68*** |
| 5.간단한 집안수리 | 5.78(1.25)b | 6.14(1.04)a | 6.08(1.11) | 3.82* |
| (주생활 평균) | 3.47(.95)b | 3.86(.92)a | 3.26(.81)b | 12.69***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과 생산직 남편의 직업특성과 관련지어 일부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문직 부인의 남편은 직업수행상 시간압박과 정신적 에너지 요구가 크며, 생산직 부인의 남편 역시 장시간의 근무 및 육체적 에너지의 요구가 크므로, 특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가사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무직 부인을 둔 남편의 가사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부부의 경우 가사수행의 공요도가 높을 것(Bird et al., 1984)이라는 예상이 지

3) 본 연구 대상자들의 부부간 직종 일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직 부인의 경우, 부부역할의 성별분리 정도가 높고, 부인의 이중역할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전문직 부인과 달리 생산직 부인의 경우, 남편 외의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생산직 계층의 이중역할 부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보다 깊이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연구문제 3)

취업부인의 직종에 따라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stepwise) 중회귀분석을 직종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관련 변수들 가운데서, 교대근무와 가족유형은 가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가변수의 경우, 교대근무할 때를 1점으로 하였으며, 가족유형은 媿母 내지 親庭母와 동거하는 가족유형을 1점으로 하였다.

모든 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간의 피어슨 상관계수표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모두 2.0에 근접하여 오차간의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정규분포에 가깝고, 예측치와 잔차간의 산포점도표에서도 랜덤으로 분포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관련 변수들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취업부인의 직종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직 부인의 경우<표 3>, 식생활 영역에서는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은 가족유형,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오직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만 독립적 영향을 미치며, 주생활 영역에서는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과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가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자신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주 요인이라 하겠으며, 남편의 주당 근무시간이 부인보다 많을수록 시간압박으로 인

<표 3> 전문직 부인의 경우,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 중속변수 b (beta) | 식생활 영역 b (beta) | 의생활 영역 b (beta) | 주생활 영역 b (beta) |
|--------------------|------------------|--------------------|--------------------|--------------------|
| 태도 변수 | | | | |
| (남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265(.404)*** | -- | -- | .399(.329)***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 (부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 | -- | -- | --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 (부인의 가정성) | | | | |
| 가사역할의 | | | | |
| 자발적 수행의식 | -- | -- | -- | -- |
| 가사역할의 | | | | |
| 우선순위와 행복 | -- | -- | -- | -- |
|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 | | | |
| 부부의 월소득 차이 | -- | -- | -- | -- |
| 부부의 | | | | |
| 주당 근무시간 차이 | -- | -.024(-.335)*** | -- | -.024(-.271)** |
| 출근시간 차이 | -- | -- | -- | -- |
| 귀가시간 차이 | -- | -- | -- | -- |
| 부인 교대근무=1 | -- | -- | -- | -- |
| 가족환경 변수 | | | | |
| 가족유형(가변수) | | | | |
| (기준: 기타 가족) | | | | |
| 시모, 친정모 동거=1 | -.305(-.245)** | -- | -- | -- |
| 가사노동환경의 | | | | |
| 편리성 | .036(.218)* | -- | -- | -- |
| 상수 | .123 | 2.668*** | 2.584*** | |
| R ² | .293 | .112 | .183 | |

주) 1.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2. 위 표에는 P<.05 수준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회귀계수들만 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하여 남편의 가사수행은 제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媿母 내지 親庭母와의 동거는 예상대로 남편의 참여를 제한함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가사노동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특히 시간요구량이 많은 식생활 영역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겠다.

〈표 4〉 사무직 부인의 경우,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 중속변수 b (beta) | 식생활 영역 b (beta) | 의생활 영역 b (beta) | 주생활 영역 b (beta) |
|--------------------------|------------------|--------------------|--------------------|--------------------|
| 태도 변수 | | | | |
| (남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310(.378)*** | .270(.233)* | -- | --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 (부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 | -- | .328(.279)** | --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 (부인의 가정성) | | | | |
| 가사역할의 자발적 수행의식 | -- | -- | -- | -- |
| 가사역할의 우선순위와 행복 | -- | -- | -- | -- |
|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 | | | |
| 부부의 월소득 차이 | -- | -- | -- | -- |
|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 | -.016(-.273)** | -- | -- | -- |
| 출근시간 차이 | .108(.193)* | -- | -- | -- |
| 귀가시간 차이 | -- | -- | -- | -- |
| 부인 교대근무=1 | -- | -- | -- | -- |
| 가족환경 변수 | | | | |
| 가족유형(가변수) (기준: 기타 가족) | | | | |
| 시모, 친정모 동거=1 | -.429(-.274)** | -.560(-.253)* | -.819(-.394)*** | |
|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 | .043(.244)** | -- | -- | |
| 상수 | .136 | 2.147*** | 2.770*** | |
| R ² | .418 | .113 | .241 | |

주) 1.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2. 위 표에는 P < .05 수준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회귀계수들만 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사무직 부인의 경우(〈표 4〉), 식생활 영역에서는 역시 전문직 부인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媿母 내지 親庭母와의 동거가 역시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주당 근무시간이 부인보다 많을수록 남편의 참여는 감소한다. 다음은 가사노동환경이 편리할수록

남편의 참여가 증가한다. 그리고 부부의 출근시간 차이가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일찍 출근할수록 부인의 현실적인 시간제약으로 인해 남편의 가사참여는 증가한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가족유형과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 의식이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주생활 영역에서는 媿母 내지 親庭母와의 동거가 남편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이다. 또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독립적 영향을 미쳐서, 부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참여는 증가한다. 이는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부인이 남편에게 공평한 가사분담을 요구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사무직 부인의 경우, 전문직 부인과 비교할 때, 媿母 내지 親庭母와의 동거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집단의 자녀의 평균 연령이 낮아서, 친족의 도움에 보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직 부인과 비교할 때 사무직 부인의 경우에는 시간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전문직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편리한 가사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직 부인의 경우(〈표 5〉), 모든 영역에서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부인의 가정성 가운데서도 특히 가사역할의 우선순위와 행복이 식생활 영역에서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부인이 가사수행을 우선시키고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수행은 상대적으로 제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직업노동보다는 현모양처로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우선순위로 들어, 이를 통해 독립성과 자유, 만족감을 추구하고자 한다(Giele, 1978)거나, 혹은 이중노동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여성역할에 대한 허위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다(이효재·지은희, 1988)는 지적과 같다. 생산직 부인의 이러한 가정성은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의 이중역할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주생활 영역에서는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 이외,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이 독립적 영향을 미친

〈표 5〉 생산직 부인의 경우,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beta) | 식생활 영역 b (beta) | 의생활 영역 b (beta) | 주생활 영역 b (beta) |
|-------------------|------------------|--------------------|--------------------|--------------------|
| 태도 변수 | | | | |
| (남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197(.518)*** | .476(.631)*** | .347(.442)*** |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부인의 성역할태도) | | | | |
| 성별역할 분리의식 | -- | -- | -- | |
| 남편의 체면손상 | -- | -- | -- | |
| (부인의 가정성) | | | | |
| 가사역할의 자발적 수행의식 | -- | -- | -- | |
| 가사역할의 우선순위와 행복 | -.108(-.269)* | -- | -- | |
|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 | | | | |
| 부부의 월소득 차이 | -- | -- | -- | |
| 부부의 주당 근무시간 차이 | -- | -- | -- | |
| 출근시간 차이 | -- | -- | -- | |
| 귀가시간 차이 | -- | -- | -- | |
| 부인 교대근무=1 | -- | -- | -- | |
| 가족환경 변수 | | | | |
| 가족유형(가변수) | | | | |
| (기준: 기타 가족) | | | | |
| 시모 친정모 동거=1 | -- | -- | -- | |
| 가사노동환경의 편리성 | -- | -- | .113(.400)** | |
| 상수 | 1.422*** | 1.359*** | -.286 | |
| R ² | .407 | .398 | .362 | |

주) 1.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2. 위 표에는 P<.05 수준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회귀계수들만 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다. 생산직 부인의 경우, 전문직 내지 사무직 부인과 비교할 때,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직 부인의 이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 남편의 전통적 태도를 변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들 계층을 위한

가사환경의 개선방안 또한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상 취업부인의 직종별로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의·주 가 하위영역에 있어 관련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은 부인의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선행연구(Ross, 198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인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모든 직종에서 대체로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한편,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로서 월소득 차이는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해 독립적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부의 경제적 자원에 근거한 합리적 교환보다는 가부장적 성별역할 이념이 보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취업부인의 남편은 비취업부인의 남편보다 가사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다는 점에 기초할 때, 한국가족의 경우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적게나마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행정도는 매우 낮아서, 부인이 취업했다라도 집안수리와 같은 전형적인 남자의 일만 남편이 주로 수행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부인이 주로 수행하고 남편은 가끔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취업부인의 이중역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무직 부인보다, 전문직이나 생산직 부인인 경우, 이들 남편의 가사참여는 상대적으로 더 저조하다. 그렇지만 남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부족한 생산직 부인의 경우, 전문직 부인과 비교할 때, 이중역할 부담이 현실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해서는, 취업부인의 직종과 상관없이 남편의 성별역할 분리의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가사를 여자가 해야 할 일로 인식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는 제한되며, 특히 생산직 부인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강하여 이들의 가

사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부인의 이중역할을 완화시키는데는 남편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밖에 가정성은 유일하게 생산직 부인의 경우에 만 독립적 효과를 미쳐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理想的인 전업주부像의 추구는 그들 남편과의 가사역할 공유를 제한하는 주 요인이다. 한편, 부부간의 월소득 차이는 독립적 영향이 없으므로, 부인이 취업했다라도 부부의 가사수행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교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媿母 내지 親庭母와 동거하는 가족유형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며, 반면 가사노동환경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남편의 가사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맞벌이 부부의 역할관계 변화와 관련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가사수행 기술을 사회화시키는 것이 성인기에 큰 도움이 되므로(Atkinson, 1987),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가사수행 기술을 개선하도록(Abdel-Ghany & Nickols, 1983) 구현시키려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는 매스컴을 통하여 협동적인 부부 역할관계 모습을 학습모델로 제시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의식의 전환 및 공평성 개념의 교육(Rachlin, 1987)이 요구된다.

다음에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시간요구량이 많은 식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간편화된 한국음식의 조리기술을 보급시킴으로써 남녀 공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약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보다 획기적 방안으로는, 부인이 취업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중심의 공동식당 운영제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Nickols와 Metzen(1982)의 지적대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졌더라도 이를 가사수행 행동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많은 의사소

통, 협상, 및 조정과정을 거치는 훈련이 필요(Smith & Reid, 1986)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은 개별 근로자의 가족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역할긴장을 도와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취업부인이 과중한 이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 부부의 결혼관계의 質은 어떠한지 규명해봄으로써, 표면적으로 나타난 적응 내지 만족의 뒤에 억압되어 있는 긴장과 갈등의 상태(Ferree, 1990)를 파악하고, 보다 협동적이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더 규명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수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에 기초하여 앞서 제시한 제언들을 고려한 가운데, 보다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킨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1973, 1982).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 1권, 제 2권.
- 2)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남성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207-246.
- 3) 김양희 외 5인(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4) 노동부(1994). 199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5) 勞働省 編(1991). 勞働白書. 日本勞働研究機構.
- 6) 대한가정학회 편(1990a).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교문사.
- 7) 대한가정학회 편(1990b).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가정관리학·소비자학·주거학. 교문사.
- 8) 옥선화(1984). 부부간의 역할구조에 대한 문헌고찰.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9: 43-58.

- 9)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11)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제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 13)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14) 이효재·지은희(1988).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실태; 노동력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2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69-97.
- 15) 조옥라 외 4인(1986). 가부장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초록. 가부장제와 한국사회: 1-23.
- 16) 조 형(1991).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가족학논집 3: 161-180.
- 17) 조혜정(1986a).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초록. 가부장제와 한국사회: 79-129.
- 18) 조혜정(1986b). 전문직 여성.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대 출판부: 53-103.
- 19)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 1권, 제 6권.
- 20) 통계청(1993).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21) 한국방송공사(1991).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22) 현정혜·박혜인(1992).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183-202.
- 23) Abdel-Ghany, M. & Nickols, S.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59-167.
- 24) Andre, R.(1981). 한국여성개발원 역(1987). 가정주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 25) Antill, J. K. & Cotton, S.(1988). Factors Affecting the Division of Labor in Households. Sex Roles 18(9/10): 531-553.
- 26) Atkinson, J.P.(1984). A Causal Model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Ph. 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7) Atkinson, J.P.(1987). Gender Rol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8 (Mar.): 5-41.
- 28) Berk, S. F.(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ew York: Plenum Press.
- 29) Bird, G. W., Bird, G. A. & Scruggs, M.(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May): 345-355.
- 30) Blair, S. L. & Johnson, M. P.(1992). Wive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a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Aug.): 570-581.
- 31) Blair, S.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 (Mar.): 91-113.
- 32) Coleman, M.T.(1988).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uggestions for Future Empirical Consideration and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9(1): 132-148.
- 33) Coltrane, S. & Ishii-Kuntz, M.(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Feb.): 43-57.
- 34) Cooper, K., Chassin, L. & Zeiss, A.(1985). The Relation of Sex-Role Self-Concept and Sex-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1/2): 227-241.
- 35) Deutsch, F.M., Lussier, J.B. & Servis, L.J.(1993).

- Husbands at Home; Predictor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54-1166.
- 36) Ericksen, J.A., Yancey, W.L. & Ericksen, E.P. (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2): 301-313.
- 37) Ferree, M.M.(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Nov.): 866-884.
- 38) Ferree, M.M.(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s; Dimensions of Vari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58-180.
- 39) Geerken, M. & Gove, W. R.(1983). *At Home and at Work;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Sage Publications, Inc.
- 40) Giele, J.Z.(1978). Changing Sex Roles and Family Structure. in A. Skolnick & Skolnick, J.H. (eds.) *Family in Transition*. 3rd ed. Little, Brown and Company(1980): 253-274.
- 41) Hartmann, H.(1981).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The Example of House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6-3 (Spring): 366-394.
- 42) Hayghe, H.V.(1990). Family Members in the Work Force. *Monthly Labor Review*(Mar.): 14-19.
- 43) Kamo, Y.(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June): 177-200.
- 44) Kamo, Y.(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348-378.
- 45) Katzev, A.R., Warner, R.L. & Acock, A.C.(1994). Girls or Boys?;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89-100.
- 46) Kim, C. & Lee, H.(1989). Sex Role Attitudes of Spouses and Task Shar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6: 671-679.
- 47) McConnell, C.R. & Brue, S.L.(1992).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3rd ed. McGraw-Hill, Inc.
- 48) Model, S.(1981). Housework by Husbands;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June): 225-237.
- 49) Moen, P.(1982). The Two-Provider Family; Problems and Potentials. in Lamb, M.E.(ed.) *Nontraditional Famili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3-43.
- 50) Nickols, S.Y. & Metzen, E.J.(1982). Impact of Wife's Employment upon Husband's Hous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3(2): 199-216.
- 51) Rachlin, V. C.(1987). Fair vs. Equal Role Relations in Dual-Career and Dual-Earner Families; Implications for Family Interventions. *Family Relations* 36 (April): 187-192.
- 52) Ross, C.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 816-833.
- 53) Smith, A.D. & Reid, W.J.(1986). *Role-Sharing Marri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54) Stockard, J. & Johnson, M.M.(1980). *Sex Roles*. Prentice-Hall, Inc.